

본문 : 요한복음 12 장 44-50 절

제목 : 보내신 분의 뜻이 영생인 줄 압니다

1. 보내신 분의 뜻을 치열하게 사셨던 예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이 "나를 보내신 분" 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인 '피파송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실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등의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 쓰는 틀에 박힌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Koh Amar Adonai" 라는 말입니다. Koh 는 '이렇게'라는 뜻이고, Amar 르는 '말하다', Adonai 는 '주님이'. 그러니까 코 아마르 아도나이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입부에 꼭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messenger formula 사자파송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이 말로 시작을 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예언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단지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요. 예수님에게 바로 예언자들에게 있었던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들 모두가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는 말이라 하고 있잖습니까. 자신을 본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에는 독창성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창성이 없다니 무슨 말이나구요? 예수님의 삶은 보내신 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었지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전파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계의 4 대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독창적인 자신만의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터키 남부의 이오니아 지방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신이 물질을 통제한다는 정신우위의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석가와 공자도 마찬가지죠. 자신들만의 사상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혼란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독창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뽑으라고 하면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정도일 겁니다. 경천애인은 '하늘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는 사상의 독창성에 있지 않고 실천의 치열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했던 구약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뜻을 치열하게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2.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빛과 어둠이라는 창세기 1 장의 이미지를 가져오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그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어둠에 속해 있겠죠. 어둠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입니다. 목적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허무한 상태이고 혼돈스런 상태가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은 빛이 비추는 순간입니다. 아무 목적이 없이 살던 인생이,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했던 삶에 의미있는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빛되신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서 빛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을 깨닫고 목적지향적이며 의미지향적인 삶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3 장 19-20 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빛을 선택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계속 어두움의 머물러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종교적 지위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득을 그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두운 삶의 기반들을 모두 허물어야 하는데 그러기 싫은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특권적인 삶의 지위를 다 허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가장 장애물이 되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3. 지속가능한 삶, 영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셨고, 그분의 뜻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예수님은 부르짖고 있습니다(44 절).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생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영생도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영생을 이미 여러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도 구약성경에서 온 단어입니다. 시편 133 편 3 절에 이 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Haim ad olahm"입니다. 시편 133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로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이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질 아름다운 삶을 영생이라 말하면서 '하임 아드 올람'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임은 life 이구요, 아드는 until, 올람 이란 말은 'for long time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한 시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ternal life 가 영생이 아니라 Sustainable life 가 영생입니다. 영원히 지속가능한 가치가 있는 삶이 영생인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구요. 구약이 말하는 영생은 이웃끼리 지속가능하게 어울려 연합하는 삶입니다.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모습이 천국이고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이런 지속가능한 삶에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옆에 있는 이웃이 나와 함께 공생관계에 있고 지속 가능할 삶을 함께 누릴 존재로 보이지 않고 배척하고 사라져야 할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 질식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상호의존적인 영생공동체를 실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죠. 완성되지 못해 남아 있는 미완의 숙제인 영생공동체의 삶을 주님이 직접

실천하신 겁니다. 자기 살을 떼어 서로 먹여주는 성만찬적인 공동체를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천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아 도는, 가난하고 배고픈 갈릴리 농민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런 영생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빛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대 영생의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구요. 빛을 선택하고 빛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은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을 매우 밝게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은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4. 산둥수용소- 이것이 인간이다.

최근에 7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산둥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1943년 3월 중국과 일본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일본군은 중국내에 머물고 있던 연합군에 포함된 서양인들을 산둥성의 웨이시엔이라는 곳에 있는 한 장로교 선교회 건물에 집단 수용을 시작합니다. 작가인 Langdon Gilkey는 하버드 졸업 이후, 선교 목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북경에 와 있다가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3년여의 수용소의 삶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프리모레비(Primo Levi, 1919-87)라는 이탈리아의 유대인 작가는 자신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인간인가? Se questo è un uomo>라는 책을 1947년에 썼었죠. 인간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 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인간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책이죠. 나치는 인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둥수용소>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고발하는 책입니다. 극단적이고 원죄적인 이기심이 인간 밑바탕에 얼마나 끈적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지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곳에 수용된 인원중 기독교인들이 상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고 신학교 교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는 그런 신분이나 종교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물 공간과 음식 뿐이었습니다. 수용소는 이전에 장로교 선교 베이스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전쟁이전에 서양인 선교사들과 선생님들은 훌륭한 저택에 머물렀었는데 수용소로 바뀌자 상황이 역전되었죠. 수용소 내 저택에는 아시아인이었던 일본군인들이 머물고 서양인 포로들은 그들이 부려먹던 아시아인들이 머물던 기숙사 건물에서 머물러야 했죠. 2000 명 넘는 인원들이 몇 동의 기숙사에 나눠서 머물렀어야 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배정된 공간은 한 두 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은 더 비참한 수준이었구요. 전쟁통에 포로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줄리가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는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였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삶이 열악해지자 도덕이고 뭐고 다 내 팽개치고 나만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들을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당시 저는 마침 산둥성 칭다오 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칭다오에서 차로 2 시간 밖에 안 되는 책 속의 이 수용소를 직접 찾아가 보고 싶었죠. 하지만 추방과 함께 다시는 중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죠. 이곳에서 벌어진 여러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곳 수용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인과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몇 번의 송환을 통해 2 천명이던 사람들이 1450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중 미국 사람들은 200 명 정도였죠. 그런데 한 번은 미국 적십자에서 이들을 위해 소포꾸러미를 1500 개를 보내줍니다. 일본군들도 미국 적십자가 1450 명의 포로들에게 하나 씩 돌아가게 하려고 보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미국인들만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미국 적십자가 주었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래서 1450 개를 200 명이 7 개 반씩 나누고 나머지는 쪼쪼 굶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에 선교사도 있었고 신학교 교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극단의 상황에서 인간성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보며 이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둠 편에 서면 우리는 빛을 잃어 버리는 매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선택해야 하고 빛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6. 교회가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웨이시엔 수용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태도는 비슷합니다.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불안해 합니다. 가능하기만 하면 더 가지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거나 배고픈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가 많이 창출되더라도 그 부가 바르게 분배되지 않으면 그 부는 불행의 원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산둥 수용소에서 음식과 공간 사용의 문제가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었죠. 공동거주에서 음식과 공간 사용은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만 모이는 공간이지요. 그곳의 냉장고에서 자주 음식들이 없어지곤 합니다. 아무리 배고픈 신학생이지만 남 몰래 남의 음식에 손을 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산둥 수용소는 극단적인 원죄적 이기심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을 잘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자 하죠. 인간이 교육을 받아 계몽되고 지성을 소유한다 해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해도 어두운 세상의 집단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빛에 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가능한 영생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머무는 교회를 통해 영생공동체의 실험은 계속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평탄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이도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서 부의 재분배가 매우 공정하게 이뤄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 장 31 절 말씀이 실제로 교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적어도 300 년간 교회는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한 이후, 율리아누스 황제가 다시 기독교를 지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의 전통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어서였죠. 율리아누스 황제는 313 년 이후 교회를 조사하게 하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가 무엇을 해 왔는지 공식적인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 없이 모든 교회가, 고와와 과부와 퇴역군인과 장례식을 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돕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했습니다. 국가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려다 발견한 역설이지요. 그래서 키프리안이라는 카르타고의 주교는 230년 경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라는 말을 한 겁니다. 교회는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시범 보여주는 영생 공동체입니다. 적극적으로 빛에 소속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둠에 붙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상의 독창성이 아니라 실천의 치열함을 보여주셨던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되신 주님의 명령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사명이 보냄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